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년 11월 22일

소비자 경고: Cuomo 주지사, 뉴욕 시민들에게 사기성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한 세금 사기 경고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소비자들이 국세청(IRS) 또는 뉴욕주 세무서를 사칭하여 개인으로부터 전화와 이메일로 사기를 조심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국세청 또는 세무서 관계자로 위장한 사기꾼들은 부과된 세금을 내지 못하면 벌금, 추방, 체포 및 기타 처벌 등으로 뉴욕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우리 행정부는 납세자들을 속이는 불법적이고 부정직한 사기 행위로부터 뉴욕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공무원 행세를 하며 납세자들의 돈을 빼앗기 위해 납세자들을 잘 속이는 공포를 이용합니다. 모든 뉴욕 시민들이 이러한 사기꾼들을 기억하고 신고 대상이라고 생각되면 당국에 즉시 연락할 것을 독려합니다."

사기는 주로 전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대방에게 송금 또는 적립된 직불 카드를 통해 IRS 또는 뉴욕주에 지불해야 하는 세금을 수혜자에게 다시 지불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어떤 경우 이러한 사기성 전화는 세금 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발송된 가짜 IRS 이메일을 동반합니다. 피해자가 주저하거나 준수하지 않으려는 기미가 보이면 가해자는 경찰의 체포 영장 또는 한 가정의 손실 등으로 위협함으로써 적대적으로 변합니다. 피해자가 이러한 위협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 이 사기꾼은 다른 사람을 통해 해당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지 법률 집행 기관과 같은 공공단체에서 나온 것처럼 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사기 중 일부는 특히 뉴욕주에 있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추방 등으로 이민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기성 전화의 대다수는 지역 번호가 530에서 오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전화의 '스푸핑(spoofing)' 기술을 통해, IRS, 뉴욕주 자동차 관리소, 지역 경찰서의 실제 전화 번호를 발신자 ID 화면에 등록하여 사기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가명과 IRS 배지 번호를 사용했으며, 피해자의 사회 보장 번호 마지막 4자리 숫자를 암송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러한 사기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뉴욕주 소비자 보호 당국(Department of State's Division of Consumer Protection)은 다음과 같은 팁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Korean

•뉴욕주 국세청 및 세무서는 항상 당국이 전화번호와 문자를 발송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연락할 수 있는 해당 전화번호와 문자로 먼저 연락합니다.
•그 어떤 기관도 이메일을 통해 개인 정보 또는 금융 정보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또는 세무서를 사칭하는 누군가가 예기치 않게 전화를 걸어 경찰 체포, 추방 또는 자격증 취소로 위협할 경우에는 즉시 전화를 끊으십시오.

당국 문의

뉴욕주 당국에 사기 행위를 신고하려면 뉴욕주 세무서(518-435-8523) 또는 뉴욕주 소비자 보호 당국(State's Division of Consumer Protection, 518-474-8583)에 문의하십시오. 뉴욕 시민은 온라인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규 미국 시민들에 대한 착취를 최소화하기 위한 New York State Office for New Americans는 전국에 걸쳐 27개의 Opportunity Center의 모든 곳이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사기를 알리고 이러한 종류의 전화를 받을 경우 전화를 끊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신규 미국 시민권자들을 위한 다국어 정보 핫라인은 (800) 566-7636입니다.

IRS에 대한 사기 신고는 (800) 829-0433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